



끝까지 되새겨야 할 상흔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

과거 흔적의 담긴 무게는 쉽게 가늠하지 못한다. 거센 풍파로 휘몰아친 역사를 그대로 품은 독립기념관의 무게도 마찬가지다. 그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품은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의 고요함은 당시 굳은 의지만 느껴질 뿐,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글 정수희 사진 조채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일부

독립기념관 겨례의 탑을 지나 태극기 한마당을 가로 지르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너머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이 보인다. 이곳은 본 전시관 구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찾는 발길이 적지만 독립기념관 방문 시 꼭 둘러볼 것을 권한다. 밀레니엄 숲에 둘러싸여 마치 황폐한 신전의 유물처럼 부재가 들성들성 놓여 있는데, 모두 조선총독부를 철거하며 나온 부재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식민통치 핵심기관으로 당시 최고 관청이었다. 일제는 조선 왕조의 기운을 억누르고자 경복궁의 강녕전과 교태전 등 4,000여 칸을 헐어버린 뒤 바로 앞에 조선총독부 청사를 설치했다. 1945년 해방까지 일제 총독이 사용하면서 각종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 민족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한 일제의 식민통치 그 자체였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 건물은 미군정 청사, 대한민국정부청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됐다.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철거됐다. 이는 일제의 식민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목적이자, 수치스럽고 아픈 역사를 씻어버리는 일부였다.



달고 삭아 소멸해야 할 잔재

조선총독부의 맨 꼭대기에 있던 첨탑은 가장 먼저 해체되어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에 전시되었다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됐다. 첨탑은 공원 한가운데 아래에 우뚝 솟아있지만, 잘 살펴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실재한다. 조선총독부 건물의 상징이었던 첨탑은 전체 높이가 8m, 무게는 30톤으로, 철거 부재 전시공원 지하 5m 깊이에 매장한 것이다. 사람의 눈높이보다 일부러 낮게 매장한 터라 관람객의 시선은 내려다볼





독립기념관

-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 🕒 3~10월 9:30~18:00 | 11~2월 9:30~17:00
- 🎫 매주 월요일 휴관(공휴일 경우 운영) 야외전시·쉼터 등 상시 개방
- ☎ 041)560-0114

수밖에 없다. 이는 일제의 몰락과 우리 민족의 치욕적인 역사를 전시하되, 조선총독부 건물 잔해를 최대한 흩대하는 방식으로 기획한 것으로 일제의 식민 잔재 청산과 극복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처럼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은 보통 전시공원과 다르게 '방치'를 콘셉트로 두고 있다. 건물 침탑과 침탑 아래 석조장식물, 정초석, 정면 중앙부 석조장식물, 원기둥 등 수십 개 부재가 전시공원 내 바닥에

나뒹굴거나 땅속에 박혀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전시공원 내 조경 역시 잡초가 자라도 따로 다듬거나 손질하지 않는다.

또한 보통 전시공원이나 박물관의 유적, 전시품과 달리 이곳의 부재들은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다. 정면 중앙 기둥 상부의 장식물 등을 원형의 박석판 위에 전시한 이유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연출한 것이다. 소리 없는 울림이어도 좋다. 만지고 닦아 삭아야 하는 잔재들이므로.

과거 조선총독부 건물 맨 위에서 조선을 굽어 내려보던 침탑은 역사 속에서 지워져 이제는 독립기념관 어느 한편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해가 지면 전시공원은 점점 더 깊은 어둠을 드리우며 폐허처럼 변해간다. 일제의 몰락과 식민잔재의 청산을 강조하기 위해 독립기념관 서쪽 끝에 조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의 흔적을 거울삼아 새로운 내일을 닦아야 할 터. 겨레의 송고한 피와 많은 땀, 고된 시간을 되새기고 관조해야 할 것이다. 🙏